2003년 11월 28일

# 제40회 무역의 날 연설

존경하는 기업인과 무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제40회 무역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탁월한 업적으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은 분들께도 거듭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출이 20% 가까이 증가하며 올 한 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연말까지 1,9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덕분에 무역수지 흑자도 이미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라크 전쟁과 사스 공포, 원화 강세 등 어려움이 컸던 올해였기에 더욱 값지고 자랑스럽습니다. 이 모두가 국내외 수출현장에서 밤낮없이 애써 주신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 덕택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충심으로 감사와 찬사를 드립니다.

수출에서 거둔 여러분의 성공을 우리 경제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확산시켜 가겠습니다. 정치와 행정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근로자와 무역 관계자 여러분,

1964년 무역의 날이 처음 제정되었을 당시만 해도 우리 수출은 1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로부터 지난 40년 동안 근로자와 기업인, 그리고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수출에 매진했습니다. 세계 최단기간에 100억 달러, 1,000억 달러 수출을 차례로 달성하고 이제 세계 12위의 수출대국이 됐습니다. 수출의 증가와 함께 국민소득도 100배 이상 늘어났고, 세계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 도 이루어 냈습니다. 또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수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수출에 기여하고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생산과 투자, 일자리와 외환보유액을 늘리고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일등공신입니다. 진정한 애국자들입니다. 거듭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

내년에는 대망의 수출 2천억 달러 시대가 열립니다. 나아가 우리는 2010년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향해 뛰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실현에도 무역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수출이 지금보다 두 배로 늘어나 4천억 달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환경은 만만치 않습니다. 기술력이 뛰어난 선진국은 저만치 앞서 나가고,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은 우리를 바짝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년간이 우리 수출과 경제의 앞날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쟁력 있는 상품, 세계 일등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기술 파급효과가 크고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해 나갈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적극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미 선정된 10대 성장산업의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해서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산업의 근간인 자동차·조선·전자·섬유 등 주력기간산업을 IT·BT·NT 등 신기술과 접목시켜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2010년까지 1,000개의 세계 일류상품을 발굴해서 미래의 수출효자상품으로 키우겠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대신 국내에서 투자를 늘리고, 외국인투자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기술혁신과 인재양성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방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쟁력을 높여 가는 것 못지 않게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 저변을 넓혀 나가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중국과 같은 유망 수출시장에 대한 진출 노력에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중국은 세계시장에서 우리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올해 제1위의 수출상대국으로 부상할 정도로 커다란 기회도 되고 있습니다. 또 세계경기 회복과 이라크 전후복구 등을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지식과 서비스 수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문화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물류 서비스 수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우리의 지정학적 장점을 살려 동북아 무역중심국가로 발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국제 통상환경과 무역흐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경제적 실익에 따라 뭉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냉엄한 현실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참석한 ASEAN+한·중·일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현실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만이 외톨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칠레 FTA에 대한 국회 비준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싱가포르 등 주변국과의 FTA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경제가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그때마다 잘 극복해 왔습니다. 어렵다 어렵다 했지만 늘 당당하게 일어섰습니다. 1970~80년대 오일쇼크 때도 그랬고, 5년 전 외환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수많은 나라가 독립했지만 우리만큼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전쟁의 폐허 위에서 분단의 멍에까지 지고서 말입니다. 정말 저력이 있는 위대한 우리 국민입니다.

2010년 국민소득 2만 달러, 수출 4천억 달러 시대는 결코 이루지 못할 꿈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오늘 맞이한 제40회 무역의 날이 새로운 결의와 다짐의 자리가 되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무역의 날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